

## 大學의 바람직한 風土 定着

李 光 奎

(서울大 人類學科)

大學은 정부의 간섭이 없는 학문의 殿堂이어야 한다. 이곳에서 교수는 진리 탐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경제적 후원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도서관이 충실하여야 하고 강의 시간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리고 교수와 학생간의 불신이 해소되어야 한다.

### 1

大學은 教育機關의 하나로서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 과정을 마친 學生이 마지막 교육을 받는 고등교육 기관에 해당된다. 그러나 大學은 고등교육 기관 이외에 다른 특수 기능을 갖는 집단이라 말할 수 있다. 그것은 學問을 연구하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大學이 학문 기관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는 말이 象牙塔이라 하는 것이다. 상아탑은 속세와 초연하여 오로지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眞理는 회랍 사람들이 추구하던 眞·善·美의 첫째 항목인 眞에 해당되는 것이다. 절대 진리로서의 眞은 理性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非西歐 국가는 서구의 학교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학의 제도와 조직을 수용하여 서구의 대학들이 경험한 과정을 모르고 결과만 수입한 것이 되었다.

대학의 전통이 5백 년, 6백 년이 넘는 유럽의 대학들의 역사를 보면 진리의 탐구를 위한 기관이 되기 위해 지나간 투쟁을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三權分立하면 그것은 立法·行政·司法의 三權이 서로 독립적이고 상호 견제하고 보완하여 民主主義를 실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大學이 성립하던 초기 學校는 敎會의 修道院에서 시작하여 敎會權에서 독립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宗教權에 대항하는 君主權과 때로는 합작을 하였고 때로는 君主權, 즉 政權과 대항하여 君主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敎育權을 확보하는 양식이 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 이후 전개된 서구의 초기 三權分立이란 敎會權, 政治權 그리고 敎育權이었다.

이때의 敎育權은 진리의 탐구로서 지등설과 같은 진리를 설명하는 데 敎회의 간섭이 있어서는 안되고 그것이 정치에 이용되어서도 아니된다

는 것이다. 진리를 탐구하는 기관이 대학이며, 대학 이외에서 진리 탐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서구 초기 대학들의 주장이었다. 이것을 위해 여러 대학이 목숨을 바친 일도 있었던 것이다.

大學의 독립이 최고조에 달하였을 때 大學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세금도 따로 거두었고 대학 내에 사법부와 입법부를 두었으며 대학 캠퍼스 내에 감옥도 있었던 것이다. 학생이 캠퍼스 밖에서 범죄 행위를 하여도 경찰이 그를 체포하여 학교 재판소에 넘기는 것이지 일반 사회의 재판소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서구 여러 나라의 대학이 사법권과 입법권 그리고 처벌권을 포기하였으나, 경찰이 캠퍼스에 출입하지 못하고 미국 대학과 같이 캠퍼스 경찰을 별도로 두는 것이다.

이러한 서구의 대학 제도를 수입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이 진리를 연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걸고 싸운 일도 없고 경찰이 최루탄을 쏘면서 대학 캠퍼스는 물론 건물 안까지 진입하여도 이것에 대항하는 교수, 교직원 하나가 없으며 포로처럼 잡혀가는 학생을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찰이 캠퍼스에 진입하게 된 원인이 진리의 토론이 아니라 체제를 비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정치 체제를 포함하여 사회 모든 것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대학이기 때문에 체제 비판을 저지하기 위한 캠퍼스 내의 경찰 투입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되지 않는다.

대학은 그 나라의 치외법권 영역으로 특정 구역으로 하고 그곳에는 나라를 전복하려는 무장 폭도가 있다 하더라도 경찰이 캠퍼스 내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대학을 치외법권 영역으로 하고 그곳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연구와 토론과 비판을 사회나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예컨대 反共에 철저한 정부라도 대학에서 행하여지는 소련 연구, 중공 연구를 묵인 내지 장려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이 하루 아침에 親中政策으로 전환하였을 때 중공을 연구한 사람들의 충고를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비유한 사람이 있

다. 대학에는 백 가지 꽃이 마음대로 자라게 내버려 두고,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꽃만 따다가 사용을 하고, 때에 따라 꽃을 바꾸어 가면 된다는 것이다. 어느만큼 많은 꽃이 대학이라는 농원에 있느냐가 그 나라의 국력이라 하였다.

이렇게 대학을 묘사하면 우리나라 대학은 한 가지 꽃만 피게 하는 농원이며 이것은 농원이 아니라 논이나 밭에 지나지 않는다. 한 가지 종자만 뿌리고 그것 이외의 것은 모조리 뽑아버리는 식이니 우리나라에는 농원이 없는 것이다.

## 2

大學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첫째 사명이다. 진리는 이성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大學은 理性을 상징하는 곳이다. 이성에 의해 자연 현상을 분석하고 그곳에 있는 원리를 추구하여 간다. 이것과 같이 사회 현상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그곳의 법칙성을 규명하여 낸다. 이러한 분석의 과정을 방법론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이성, 분석, 방법론 등은 대학의 독점물인 것이다.

자연과학보다 인문·사회과학이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인간이나 사회나 문화는 분석의 틀과 방법에 여러 가지 척도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분석의 필연적 속성에 따라 사회 비판적 성격을 갖는다. 비판이 결여된 분석은 분석이 아닌 것이라고 극단적인 표현마저 가능한 것이다.

大學의 본래의 사명에 따라 때로는 비생산적이라 생각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교수가 정력을 소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수는 자기 나름대로 문제 의식을 갖고 그것을 분석하고 결과를 정리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러한 대학 교수의 태도는 때로는 비정상적이기도 하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본다. 미국 꽃대학 도서관에서 있었던 이야기이다. 老教授가 외투를 입고 도서관에 들어와 현관에서 외투를 벗고 옷걸이에 걸어 놓고 盥室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서고에서 나온 노교수는 책을 든 채 외투를 입고 나왔으나, 그 외투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한 것은 자기 연

구실 앞에 가서의 일이었다. 주머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하더니 자기의 소지품이 아닌 것이 손에 잡힐 것이다. 자기 외투를 찾기 위해 도서관까지 3~4분을 다시 걸여와 자기 것을 찾아갔다. 먼저 입있던 외투의 주인이 노교수를 안내하면서 연구실까지 배웅하였고 가는 도중 두 사람은 무엇인지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걸어가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교수들은 무엇에 몰두하고 세상을 모르며, 심지어 법을 위반하여도 그것을 예외로 받아 주는 사회가 있다.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서 교수가 남의 외투를 입고 갔다면 정신 나갔느니 심지어 도둑질을 하였다고 징계할지 모르겠다.

### 3

우리나라 낫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하는 말이 대학 교수의 의무 시간이 그렇게 적은 것에 놀랐다 한다. 대학 교수는 일주일에 9시간만 강의할 하니 참으로 늘고먹는 족속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교수는 주 9시간 강의를 하기 때문에 3강좌만 맡으면 된다. 중·고등학교 선생이나 국민학교 선생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의무 시간을 갖고 있으며 다른 직업에 비하면 더욱 그러한 것이다.

미국의 낫대학에서는 주 3강좌가 많다고 주 6시간 2강좌만을 하는 곳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교수의 몇 배 봉급을 받는다. 참으로 부러운 현상이다.

실제 주 9시간 3강좌는 몹시 바쁘다. 대학에서는 전공 과목에서도 자기의 전공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전공 영역에 관한 저서와 논문 등을 빠짐없이 읽고 소화하며, 사회과학의 경우 그것을 우리 사회 현상과 연결시켜 분석하려면 실은 한 강좌만 하여도 힘이 든다. 특히 최근의 세계 각국은 전문화를 시두르고 그 정보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뒤따라 가기 바쁜 형편이다.

6시간 2강좌하는 곳에서 교수들은 한 강좌는 '개론', 한 강좌는 전공 영역을 강의한다. 9시간 3강좌를 하면 '개론' 이외에 두 전공 강좌를

말아야 하는데 두 전공 영역을 담당하기란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한 전공 영역에 충실하고 한 영역은 등한시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사회가 더 발달하고 재정이 허락하면 보다 많은 교수를 두고 이들에게 2강좌 주 6시간 이상을 맡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 4

大學에서 교수와 학생이 연구를 하는 데에는 실험실이 필요하듯 도서관이 필요하다. 도서관의 도서가 특히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의 생명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의 대학들은 도서관을 대학 캠퍼스의 중심에 두고 있다. 그리고 대학들은 몇 백만 권의 장서가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또 미국 대학의 예를 들어 미안하지만, 비클리大學이나 하버드大學 등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세계 모든 곳에서 출판되는 도서들을 수집하여 놓았다. 심지어 2류 대학이라 하는 낫주립대학을 보아도 미국 내에서 출판된 영어로 된 모든 도서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도 대학간의 도서 대출 제도를 설치하여 자기 대학 도서관에 없는 책은 다른 대학 도서관에서 대출하여다 주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내에 한하지 않고 서구 여러 나라와 연결이 되어 미국에 앉아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도서관 책을 대출하여 보고 돌려 보내는 것이다.

참으로 부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에는 없는 책이 더 많고 어느 대학 도서관 하나 한국에서 출판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집하여 놓은 대학 도서관이 없다. 미안한 말이지만,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몇 개 대학이 박사·석사학위 논문을 자기들의 것만 교환·배치하였을 뿐 이들 대학들에서도 다른 대학의 석사·박사학위 논문도 없고 목록도 없다. 이것과 같이 서울대 도서관에 다른 대학 박사학위 논문이 없고 경희대, 한양대, 건국대, 중앙대, 단국대, 숙명여대 등에 다른 대학의 박사학위 목록조차 없다.

도서는 대학의 생명이다. 건물이 부족하여 야간에 강의를 하여도 도서는 많아야 한다. 원한다면 어느 대학이라도 좋다. 한 대학 도서관이라도 국제 수준에 빠지지 않는 장서를 갖춘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 최근과 같이 복사기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느 대학 하나라도 한국에서 나온 모든 저서와 간행물을 완전히 수집하고,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저서와 간행물을 완벽하게 수집한 곳이 있기를 바란다.

## 5

大學은 교수와 학생이 지식을 논하고 지식을 생산하여 내는 지식의 공장이다. 캠퍼스에서는 그곳이 교수 개인 연구실이면 교수와 학생이 모이는 강의실이건 또는 학생들만이 모이는 정원의 벤취이건 그곳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모두 전공 연구 영역에 관한 이야기이거나 그것에 입각한 사회 분석이어야 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교수가 강의 시간에 들어와 강의를 한 것을 정리할 것이 바로 저서로 되어 나온다. 교수들이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강의하기 때문에 강의가 끝나면 그것을 바로 출판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경험한 것은 이리하다.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숙제를 주는데 그것이 자기 저서의 장과 절에 해당되는 것들이었다. 학생들은 자기가 맡은 강의 참고 문헌을 조사하고 그것들을 읽고 와서 교수와 토론을 한다. 그것들을 정리하여 그 학기가 끝나면서 교수와 학생의 공동 작업으로 저서가 나온다.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학생들끼리 계속하여 토론하는 것이 전공 과목과 관계된 이야기들이다. 이와 같이 대학에서만은 모든 곳에서 학문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 같다. 만일 어떤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기의 저서에 관한 것을 나누어 주어 조사하게 하거나 심지어 완성된 저서의 원고를 읽어 오라 한다면, 교수가 학생을 사병화하였다고 교수를 비난할 것이다. 말하자면 대학의 學問의 風土가 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흔히 수업 시간의 강의 내용과 교수들의 저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에서 교수가 저작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강의에 충실하지 못한 인상을 주어 저술 활동이 마치 시간을 도둑질 하는 것과 같은 느낌마저 가져야 할 경우가 있다.

말하자면 대학 교수가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저서를 출판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강의에 충실하면 저서가 빈약하고 저서가 많으면 강의를 충실히 하지 못하는 모한 조건 속에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 교수의 현실이다. 이것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다.

## 6

大學이 학문을 하는 곳이고 학문을 하는 교수가 학문적 분위기를 갖는다는 것은 교수의 입장에서 말하면 학생과 호흡을 같이 한다는 것이 된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학문 이전에 教授와 學生 사이에 信賴가 있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에서 도서 부족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교수와 학생간의 거리감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이 큰 캠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科의 교수 이외에는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大型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교수가 자기 科의 학생 전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교수는 학생의 도덕과 인격까지 책임지는 스승이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전문인으로 화하여 예전과 같은 인정이 사제 간에는 없어졌다고 한다. 이것은 대형화한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현상 이외에 우리나라에는 특수 사정이 있었다. 한때 학교에서 심한 反政府 시위가 있었을 때 교수들이 취한 태도는 미미하였다. 특히 전투 경찰이 건물 내부에까지 난입하여 학생들을 마치 포로와도 같이 때리면서 연행하여 갈 때도 교수들은 그것을 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겨우 한다는 것이 학생들을 교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연행된 학생에 대해 처벌하라는 당국의 지시를 받고 그 벌의 경중을 논한 것이 소위 교수 회의였다. 이러한 교수를 학생이 무

엇을 보고 믿으며 그 교수들의 사회 비판이 어찌 옳은 비판이며 옳은 비판이라도 학생이 그것을 옳다고 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보잘 것 없는 교수이지만, 교수의 권위를 옹호하여야 할 당국이 교수를 바보로 만든 것이다. 교수에게 수백 명 청중 앞에서 전공 분야를 설명하라 하면 수백 명 청중에게 깊은 감명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교수에게 학생 데모를 막으라 하면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며, 학생 앞에 선 교수의 모습은 참으로 처량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학생이正義를 부르짖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선 교수의 모습은 더욱 처참하였던 것이다.

더욱 가소로운 것은 세상이 바뀌어 처벌되었던 학생이 복학을 하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복학 수속을 도우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수는 체통을 상실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러한 교수를 존경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어느 대학에서도 볼 수 없는 교수와 학생간의 깊은 불신의 골이 생긴 것이다. 그 비근한 예로 최근에는 없어졌으나, 한때 학생들이 캠퍼스 잔디 위에서 공공연하게 화투와 포커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교수들은 못본 척하고 그 옆을 지나가야 했다.

또 최근에 없어지기 시작하는 현상의 하나로 독서회를 들 수 있다. 어찌다 연구실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모여 독서회를 하는데 그 주제는 중속 이론, 맑시즘 등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었다. 만일 이 독서회가 전공 분야에 관한 것이라면 그 방에 들어간 교수가 얼마나 신이 나서 학생들과 어울려 같이 토론을 하고 기뻐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여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이 교수를 보고 놀라며 당황한 표정을 하듯이 그 방에 들어간 교수도 계면적어 빨리 뛰어나오곤 한다.

최근에는 복과 쾡과리를 두드리는 학생들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물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이것 때문에 수업이 되지 않아도 창문을 열고 야단치는 교수 한 사람이 없으니 이것 또한 구슬픈 광경이 아닐 수 없다.

학교 강의에서도 학생들은 꼭 들어야 한다는 강의 이외에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대학에는 학과 강의 이외에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강좌, 특별 강좌 등이 있다. 이것은 때로는 학과 강의보다 상당히 좋은 강연들이 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강의를 매주 여러 번 개최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강좌나 강연이 적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있어도 듣는 학생이 그렇게 적을 수가 없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교수와 학생간에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시급한 문제의 하나가 교수와 학생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 7

우리나라에도 최근 평생 교육을 한다는 미명 아래 대학생 이상의 중년들이 특수 과정을 이수하느라 캠퍼스에 출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학생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특수 과정의 특수반에만 출입을 하고 그 수도 많지 않다.

외국의 경우, 특히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대학 입학이 자유롭고 졸업이 자유로워 명실공히 평생 교육을 한다. 대학에 입학하였다가 가정 사정으로 몇 년을 쉬고 다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직장에 다니다 필요에 의해 몇 개 강좌만 듣는 사람도 많으며, 선교사로 나갔다가 휴가를 맞아 귀국하여 다시 학교에서 종교학을 듣는 성직자도 있다.

흥미로웠던 예의 하나는 2차 대전시 사단장을 하던 사람이 정년 퇴임을 하고 대학에 와 '2차 대전사'라는 강의를 듣고 있었다. 이 강의를 담당할 교수의 연령은 40대였고 강의를 듣는 퇴역 장성의 연령은 60대였다. 교수가 강의 도중 그 장성에게 자기의 지식이 옳은 것이냐 확인을 하였고, 퇴역 장성은 당시의 국제 정세, 특히 적국의 사정을 열심히 경청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광경을 많이 보았다. 어떤 강의의 학생은某회사의 지배인, 전무, 상무들도 있었고 이들이 몹시 바빠서 교수의 강의를 TV로 듣고 전화로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교수는 질문 전화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였다.

이것과 유사하게 미국의 몇몇원에서 유명한 교수가 수술하는 광경을 미국의 모든 의과대학에서 TV를 통해 보고 집도가 끝난 후 TV를 통해 토론하는 것을 보았다. 참으로 부러운 광경이었다.

이것 이외에도 외국에서는 교수들끼리 다른 교수의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고 합동으로 강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강의를 공개되어 있다. 특히 사회나 회사에서의 업무와 강의를 직결되어 덩실덩이 산학협동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회사원이 오후 6시 퇴근 후에도 들을 수 있게 늦은 시간의 강의도 있어 대학 캠퍼스는 24시간 가동되는 느낌을 가졌다. 밤 12시까지 강의실의 불이 켜져 있기도 하고 새벽 4시까지 도서관의 문이 열려 있기도 하며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는 기숙사 방도 있었다.

이러한 동경 이외에도 유명한 대학에는 한 학기 계속하여 저녁과 밤에 캠퍼스에서 각종 행사들이 있다. 오케스트라, 오페라, 연극, 영화 등이 계속하여 캠퍼스 내에서 행해지고 각종 전시회 등이 있어 대학 캠퍼스는 사회 전원에게 개방된 학문의 전당, 예술의 전당, 사교의 전당이다.

## 8

미국 대학에서 부러운 것 중의 하나는 입학식과 졸업식이었다. 특히 졸업식에는 대학의 큰 잔치날이기 때문에 외부 손님이 많이 온다. 대개 큰 대학에서는 졸업식을 2일간 거행한다. 하루는 교수와 학생 전원이 모여 졸업생에게 각종 상장을 수여하고 다음 날에는 전원이 까운을 입고 내외 귀빈이 입추의 여지 없이 모인 대강당에 총장 이하 모든 교수들과 까운을 입고 함께 입장을 한다. 그 행렬도 장엄하며 학생과 내빈의 기립 박수 또한 진지하다. 그리고 이날에는 유명한 연사를 초청하여 인상적인 강연을 하는 것이다. 처칠의 '철의 장막'이라는 말은 그가 미국 몇대학 졸업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사용한 말이다.

## 9

지나치게 외국 대학 이야기만 하여 우리나라 대학의 장점에 관하여 인식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장점은 열거하지 않고 약점만 열거한 것은 우리나라 대학이 좀더 잘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학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간추려 우리나라 대학의 참다운 기풍을 조성하는 데 몇 마디 조언을 할까 한다.

첫째, 우리나라 당국이 대학을 대학답게 육성할 의지가 있어야 하겠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이성을 연마하는 곳이다. 나라의 이성으로써 대학을 아껴야 나라가 부강하여진다. 대학에서 무엇을 연구하더라도 학문의 자유를 십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또는 자기의 약점을 찌르는 대학을 위해 연구비를 더 지불할 아량을 갖고 대학을 육성하여야 한다.

대학에서 행하는 모든 비판을 양심의 소리로 인식하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아량이 우리나라 爲政者들에게 필요하다.

둘째, 교수의 학문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학생 지도, 학교 행정 등의 잡무에서 해방시키고 하나의 전문 영역에서 세계 수준에 이르게끔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교수들의 과중한 일을 덜어 주었을 때 그리고 안심하고 공부할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수가 오히려 공부에만 전념하여도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오르려면 한 세대는 지나야 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정치 발전에는 혁명을 통한 비약이 있을 수 있고 경제 발전에도 라인강의 기적과 같은 기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학문의 발전은 비약이 있을 수 없고 누적적 있을 뿐이다.

셋째, 도서관이 완벽할 정도로 도서를 갖추어야 하겠다. 도서는 대학의 재산이 아니라 나라의 재산이다. 정부도 대학 당국도 도서관 구입에 인색치 말고 도서관을 완비하고 도서관에 모든 교수와 모든 학생이 자유로이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교수, 모든 학생은 자기 대학 교수와 학생에 한하지 말고 전국의 대학 교수와 전

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학간의 도서관 연계 제도를 빨리 실시하여 전국의 모든 학생이 책을 구하는 데 불편이 없게 하고 이것을 일본, 중국, 미국, 소련에까지 확대하여 도서 대출 교환·봉사 제도를 세계에 확대하여야 하고 이것이 상당히 시급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 열람 시간을 24시간으로 하고 서고와 열람실을 따로 두게 달아야 한다.

넷째,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이 간격 없는 신뢰를 빨리 회복하여야 하겠다. 교수가 비록 세계 수준의 일급은 아니라 하더라도 교수를 믿고 따르며 그에게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학문의 길을 인도받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비록 교수가 진인적 교육을 못한다 하더라도 학문의 세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비도덕적일 수 없고 교수에게서 정확한 지식을 전달받고 학문하는 태도를 이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한편, 교수들은 공부는 하지 않고 데모만 하는 학생을 불량하다고 보지 말고 그 귀중하고 아까운 시간에 수입도 없는 데모를 하고 화염병을 던지며 몽둥이를 맞는 학생이 왜 그러한가를 너그러이 인식하고 정의를 위해 일어난 정신을 가루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을 탓하기 전에 사회의 부조리를 좀더 학문적·이성적으로 비판하고 오히려 학생들을 선도할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학생과 일치되어 사회를 비판하고 분석하며 그것을 이론화하여 학계에 공헌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대학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다섯째, 대학은 연구와 수업 이외에 사회에 봉사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사회에 봉사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를 선도하고 산학협동을 이루어야 한다.

대학 문화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려면 이런 모든 조건을 개선하여 학생과 교수간에 학문의 이야기가 끝없이 전개되고 그것이 캠퍼스에 넘쳐 흘러 사회에 향기가 되고 그러한 향기가 온 사회를 뒤덮을 때 우리나라의 대학도 제 궤도에 오르는 것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참다운 대학 문화를 갖기 위한 提言으로 대학에 儀禮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어느 사이인지 대학에서 행하는 졸업

식이나 입학식에 평교수는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이러한 의식에는 보직 교수나 참가하고 평교수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옳으며 평교수를 앉게 하는 좌석도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 대학 교수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며 대학 당국도 이것을 대학교수의 권위 유지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식민지 근성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졸업식과 입학식은 대학 교유의 중요한 행사로서 대학의 주인인 교수가 빠짐없이 자기 학교 간치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교수 전원이 가까운 입을 당당하게 석장에 입장하여 졸업생을 축하하여 주고 학생들도 감사의 정을 나누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에 상징적 의례가 없는 것이 권위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이때 온 캠퍼스가 나팔을 불고 징을 치고 재학생이 졸업생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주고 학부모가 학생, 아들, 딸과 기념 사진을 찍고 기쁨이 넘쳐 사회의 다른 분야 사람들이 부러워 하여야 한다.

2월 졸업식에는 졸업생과 학부모들이 어설프게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교수와 재학생은 캠퍼스에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4월, 5월에 아름답게 피는 개나리, 진달래는 자기 멋대로 피고 진다. 그리고 5월, 6월에는 캠퍼스마다 5월제, 6월제 하여 반정부·반사회 시위에 이어 축제가 벌어진다. 대학생은 신이 나서 팽파리와 북을 치고 교수와 졸업생은 모두 의면한다. 이것이 올바른 대학 문화일 수 없음을 말할 것도 없다.

외국에서는 학사 행정과 관계없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택해 졸업식을 따로 거행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우리도 졸업식을 캠퍼스에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는 시기에 전 교수가 빠짐없이 가까운 입을 입장을 하는 졸업식을 갖고 學生이 막걸리를 마시며 북에, 징에, 팽파리를 치면서 졸업생과 한바탕 어울리는 캠퍼스의 한마당이 이루어지는 의례와 축제가 합치된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거행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